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4



### 2024 신년교례회

3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Fort Lee에 있는 Double Tree Hotel에서 2024년 신년교례회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본래 3월말은 봄맞이로 날씨가 다소 예측이 어렵지만 마침 새벽 부터 심한 봄비가 내려서 외출이 불편한데도 등록하신 회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준행 회장님께서 4년만에 신년교례회에 3시반부터 나오셔서 9시에 끝날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플러싱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van을 운영했는데 모두 좋아하셔서 앞으로도 자주 준비하겠습니다.

호텔측에서 특별히 신경을 썼는지 reception 음식도 훌륭하고 마침 정해민 고문께서 준비해주신 신선한 생선회까지 더해져 아주 입이 호강하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의 회포를 푸느라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홍종만 회장의 인사와 손경택 전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준행 명예회장의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며 골든클럽의 지나는 세월들을 회고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짐했습니다.

이전구 회원의 손자 정현군이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모니카와 큰 할아버지 이준구님에게서 배운 태권도 시범으로 큰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시작한 미니 음악회에서는 캐나다 첼리스트 Sam Hwang, 신송은의 가야금 연주, 테너 김기웅의 오~솔레미오로 연결되어 감동되고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만찬 후에 손대홍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순서에서 손회원 특유의 구수한 입담에 예측할 수 없는 퀴즈들과 객선섭 회원 부부의 댄스, 권정덕 조승자 회원 등의 가라오케로 이어져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 맞추어 2024년 주소록을 발행하였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3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골든클럽과 함께하는 현재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첫번째 골프대회

4월 산행 안내



아직 강한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다소 따뜻해질 4월에 첫 번째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shotgun을 하려면 40명이 필요합니다. 첫 모임 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모두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4월 25일 (목) 12:00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NJ  
**회비:**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kbs8717@gmail.com  
**Tee off:** 인원이 많아져서 Shotgun start를 희망합니다  
**Dinner와 시상식:**  
 Alexis Steakhouse & Tavern  
 955 Valley Rd, Clifton, NJ 07013  
 (973)746-6600

골든클럽 당구 모임



**시간:** 매월 첫째와 셋째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Star Billiards  
 500 10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박기환 (914-653-3507)

2024년 3월21일 1차 산행을 비교적 쉽고 무리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12명이 참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좋은 운동과 취미가 있지만 큰 부담없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여가활동은 하이킹이 으뜸이기에, 가능하면 매월 산에서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단련하며 즐거움을 연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4월 11일(목) 9시  
**집결장소:** PIP exit 4-5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73.9388)  
**Trailhead:** Lake Tiorati Picnic Area Parking Lot  
 (GPS 좌표, 41.2747,-74.0895)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와 간이 도시락  
 (하산후 Pizza Pit에서 뒤풀이 합니다.)  
 Pizza Pit; 57 Orange Turnpike, Sloatsburg  
**문의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신입회원

**한민우** ( 의대 69년 입학)  
 (M) (201) 957-9064,  
 (E) minwoohan51@gmail.com  
 Minwoo Han  
 2 Sawmill Rd  
 Saddle River, NJ 07458  
 DOB: une 5, 1951  
 Wife: Tina Han



폭우에도 화기가 충만한 신년교례 만찬장



9순 기념패를 받으신 김영덕 이준행 진봉일 임호순 권태전 회원님



귀염을 독차지한 이정현 군(이전구 회원 손자)의 하모니카와 태권도 시범



손대홍 회원이 재치있게 진행한 5부 여흥순서



3월 21일 95세 생신을 맞으신 이준행 명예회장을 축하하며



3월 21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12명이 참가한 첫산행



3월 10일 Underwood Orchestra Concert에 함께한 회원들



2월 24일 Adirondack High Peaks 지역 캠핑 중인 홍종만 회장부부

## 박기환 (Kifan Park) (문리58)

\* 대담 및 정리 김영천 (약대 72)

**학창시절:** 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살았다. 주로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버님의 권유로 화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경남고 졸업 후 58년도에 서울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병역의 의무를 실행하게 되었다. 당시 병역은 3년이었는데, 재학시 학도병으로 가면 1년 반에 마칠 수 있어서,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졸업을 하였다. 일본에서 공부할 생각도 있어서 일본어 학원도 다니고 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달리 부모님은 미국행을 반대하셨지만, 아내가 6개월 먼저 미국행을 하게 되고, 나도 뒤이어 65년도에 미국에 오게 됐다

**부인과의 만남:** 나의 여동생과 아내의 동생이 부산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다, 서울역에 동생을 마중나갔다 기차역에서 처음 아내(김현미)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다. 아내는 당시 숙명여대(음대 피아노 전공)에 다녔다. 그 후 서로 만나고, 계속 전화하고, 그냥 몰래 뒤따라 다니고 했다. 택시를 타고 숙대 정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어떤 때는 또 친구하고 같이 가서 차비 없다, 차비 달라고 하고 하면서 골머리도 많이 아프게 하였다. (이상 Mrs. Pak의 회상)

**가족관계:** 나의 가족이라 하면 분위기가 학구적이었다고나 할까? 우선 부친부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다. 나는 6남 1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형 세분이 모두 일본에서 동경제대를 다니셨다. 한 집안에서 세명이나 동경대학(동경제대)에 다닌 경우는 일본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우리 집 자녀는 2남 1녀, 큰 아들은 NYU 졸업, Cornell MBA후 Fordam에서 교무처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UC Berkely 졸업후 Florida CITI 근무, 막내인 딸은 Columbia 졸업후 Oracle, computer technology company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한인들과의 소통이 적어 자녀들이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미국 유학시절:** 나는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다. St. John's University에서 물리화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할 생각도 있어 시간을 할애해 MBA도 마쳤다. 화학 연구에는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및 물리화학 등 5개 분야가 있다. 이 가운데 나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내가 공부한 전공에 대해서 잘 선택했다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평생 공부하면서 생활에 적용할 생각이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Johnson and Johnson의 자회사 Ortho Pharmaceutical의 분석화학 실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이후 최근 10년 가까이 어린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취미 생활:** 나의 취미는 골프와 당구인데, 당구가 아주 재미있다. 400점 몇 번 쳐봤는데 예전엔 그만 못하고,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다. 300점까지는 안 되고 150에서 250점 정도... 그래도 흥미가 아주 만점이다.



**생활신조:**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방법과 의지를 갖게 된다. 무엇을 생각할 때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 유지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하 운동실에서 스텝 사우나를 30분 하고, 방에 올라와서 골프 스트라이크 근력을 키우기 위해 골프 스윙을 한 5분 정도 하며, 땀을 내는 운동을 한다. 또 항상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로 정신건강 유지에도 힘쓴다.

**아내의 내조:** 미국의 봉급제도는 박사학위자나 대학졸업자나 같은 계통의 일을 할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관계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공부만 하다 보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내의 부친은 검사, 특검 검사 공직 생활 이후, 변호사 개업으로 명망과 부유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어려운 유학시절, 피아노 레슨으로 용돈도 보태고, 아이들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기도 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며 살림에 서포트를 하였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때의 경험으로 삶의 질을 회상하면, 물질적인 풍요보단 내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골든클럽에 대한 희망:** 지금까지 골든클럽은 이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특별한 불평은 없고 이 모임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동문들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많아졌으면 한다.

**죽음에 관한 관점:** 나의 삶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과연 나의 삶은 시작이 있었을까? 종교에서 말하는 Eternal Life도 시작이 있었을까? 나는 시작한 것은 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묻지 말고 세상 떠나라” 하는 것 같다.

# 개기일식 2024

■ 글과 그림 작성 조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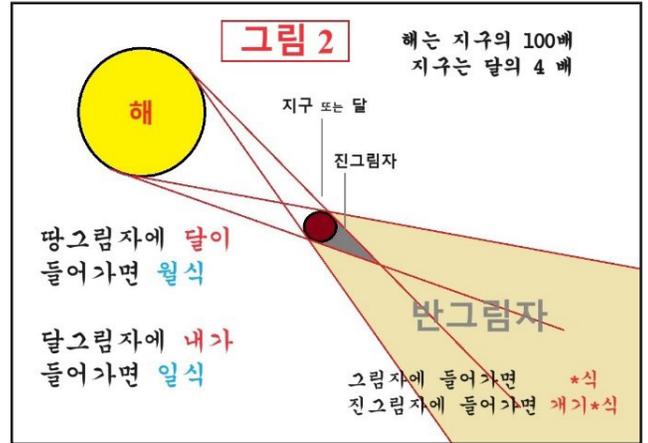
평생 한번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개기일식이 오는 양력 사월 초과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메인주까지 다소 다른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텁게 덮여도, 아무리 짙은 그림자에 숨어도, ... 그림 1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식 월식이 주기적으로 생기는 지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태양은 이 세상 '모든 빛'의 원천이고 그림자 또한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도는 지구와 달의 두 평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 때문에 하늘에 달이 가는 길이나 해가 가는 길이 같고, 다른 행성들 즉 수성 금성 화성 등도 역시 같은 길 황도 黃道 로 갑니다. 모두가 황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에서 보면 두세개의 행성이 한 곳에 있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지구와 달도, 해에서 보기에 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매달 두번씩 생기지요. 한번은 음력 보름날 다른 한번은 음력 그믐날인데, 지구는 언제나 일정한 크기로 보일것이고, 작은 달은 지구를 도는 것이 보일겁니다.

일식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리와 크기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거리와 크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먼거리에 있으면 작고 가까이에 있으면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해가 달보다 클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가/작은가? 숫자로 얘기하면 매우 확실하게 느끼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킬로라고 하면 틀리고, 빛의 진짜 속도는 초속 299,792,458킬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구는 달의 4배쯤 되고, 해는 지구의 100배쯤 되고, 따라서 해는 달의 400배쯤 큼니다. 그런데, 해와 달은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해까지의 거리는 달까지 거리의 400배쯤일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빨리, 즉 빛의 속도로 가면 1+초가 걸리고, 해까지는 그 400배로 500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다음 그림 2를 보면서 일식/월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해의 그림자는 절대 없지만 다른 행성들은 모두 그림자가 있겠지요. 일식은 지구가 달의 그림자에 들어가면 생기는 데, 달의 진그림자에 들어가면 해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됩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보다 작고 해는 더더욱 크기 때문에 달의 진그림자는 진짜 작습니다.



즉, 달의 진그림자가 지구표면에 닿는 일은 많지 않겠지요. 여기에서 좀더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도 달도 해와 함께 서로서로 당기는 중력 때문에 돌고 있긴 한데, 도는 궤도가 정확한 원이 아닌 타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에서 나선형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기계나 로봇처럼 딱딱 맞아 돌지 않고 서로간의 거리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진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지구의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달의 그림자보다 크고 달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달이 지구그림자에 들어가는 일은 훨씬 잦은 편이고, 또 월식은 지구 절반이상이 동시에 볼수 있으므로 월식보는 일은 훨씬 쉬운일입니다.

이번 일식은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는 편이어서 '진그림자'가 지구에 닿고 이때 진그림자의 직경이 100마일 정도 됩니다. 다음 그림 3을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달그림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메인주까지 미국의 많은 주를 지나게 됩니다. 달의 진그림자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천섬쪽으로 이동해서 이동경로 100마일 폭 안에서는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뉴욕시에도 달그림자가 드리워 해의 반쯤 가려질 것입니다. 일식은 초과일 오후 세시쯤에 시작해서 반시간정도 계속될 것인데, 해쪽을 보실 때는 반드시 짙한 안경을 끼어야 눈이 상하지 않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최고급 선글라스라도 해를 쳐다볼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고 일식용 글라스 solar eclipse glasse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녀와서

■ 오순문(사대68)

여행은 Exiting이다. 여행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another story telling이다. 사람들은 항상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기에 집을 도망쳐 나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 프로를 좋아한다. 모처럼 집사람과 10박11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여행했다. 기러기 부부로 떨어져 살 때는 일년에 두 번씩 방학때마다 여행을 했었는데 같이 사니까 오히려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소홀했던 것 같다. 26일 밤비행기로 JFK를 떠나 6시간반 동안 비행해 아침에 리스본에 도착했다.

첫째날은 포르투갈의 숨은 보석이라는 Sintra에서 8-14세기경 번성했던 북서 아프리카 모로코 계통의 검은 이슬람 무어인(Moors)들의 폐냐성을 둘러보고, 리스본 근교 수도원과 여왕의 도시 오비투스와 파티마 성당을 둘러봤다. 수도원에서 먹던 에그타겔이란 계란모양의 빵을 먹으면서 빵이란 말이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회상하기도 했다.

1917년 리스본 북부 20km의 한 목장에서 성모가 세 어린이에게 나타나 세 가지 예언을 남겼다는 파티마 성당은 그 규모가 엄청 컸는데, 2005년 마지막 목격자 수녀 루치아가 선종하면서 모든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한다. 마침 한국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가 발현한 성지에서 큰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 반가웠다. 포르투갈은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1492년)한 후, 이웃 스페인과 함께 대항해시대(15-16세기초)를 만끽했다. 브라질과 마카오 같은 큰 식민지들과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긴 했지만, 적은 인구로 식민지를 경영하기엔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이웃 스페인은 3-5년이면 해외 주둔군이나 관료들을 교대해줄 수가 있었지만, 포르투갈은 한 번 해외 나가면 보통 10년-20년이 되어야 교대가 되니 가정이란 가정은 다 깨져 버렸다고 한다.

둘째 날은 5시간반 정도 남쪽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스페인의 세비아(Sevilla)에 도착해 성당과 중세도시들을 둘러 보았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창밖으로는 산악지대와 올리브 농장, 양목장들이 지나갔다. 열흘동안 4명이 대형 벤츠 SUV로 장소를 선택하면서 다니니까 살살이 보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행 내내 좋은 날씨였지만 강우량이 적어서 나무가 적고 수종이 무척 단순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초원(Pampas) 평야지역으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배꽃 같은 꽃을 활짝 핀 알몬드 나무들이 있었다.

셋째 날은 콜럼버스 무덤이 있는 세비아 대성당을 방문했다. 콜럼버스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 인물이다. 이탈리아의 평민 콜럼버스가 이사벨1세 여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한 후 그는 전인류의 영웅이 되었고, 그후에도 스페인 상류 지배층 왕족들과 부자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신대륙으로 선단을 꾸려 항해에 나섰다. 그러나 기대만큼 경제적 성과



를 거두지 못했고, 돈을 잃은 부자들은 콜럼버스를 비방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박대했다. 지금도 4차에 걸쳐 중남미 일대를 침탈했던 콜럼버스를 악질 노예 사냥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나는 죽으면 절대로 스페인에 묻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콜럼버스가 죽고는 시신이 후손들에 의해 서인도제도 도미니카 공화국에 묻혀졌다가,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1898)에서 패전의 댓가로 필리핀과 미국 남서부를 미국에 넘길 때 콜럼버스 시신을 스페인으로 양도 받아서 안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겠다는 콜럼버스의 맹세를 존중해서 당시 스페인의 네 왕이 관을 어깨에 맨채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유레가 없는 무덤[사지]을 만들게 되었다.

넷째 날, 지브롤타(Gibraltar)는 스페인 최남단에 불록 솟아있는 맨하탄의 1/13정도 되는 작은 땅이다. 지금은 영국령이고 지중해와 대서양이 맞닿는 곳이며, 아프리카의 끝인 모로코와 뻗어 보이는 곳이다(14km거리).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로 스페인이 반환을 요구하기는 하나 스페인도 똑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땅을 모로코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있어 서로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산봉우리 공원에는 야생 원숭이들이 관광객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다섯째 날은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다리를 폭파하는 장면의 무대인 론다(Ronda)다리를 방문했다.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중군기자로 참여해 론다절벽[사지]을 요충지로 한 산악 계곡 라전과 사랑을 중심으로 쓴 소설이다. 우리 세대는 바다와 노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헤밍웨이와 친근하다. 지금은 투우와 함께 론다절벽이 관광마을이 되었다

는데 우리는 SUV로 시골길을 따라 다리 아래까지 내려가 재미있게 절벽 위 아래 양쪽에서 볼 수 있었다. 스페인 남동쪽 지중해 연안은 온화한 날씨와 값싼 생활비로 유럽인들의 휴양, 은퇴도시로 발전했다.

여섯째 날, **코르도바(Cordoba)**는 스페인 중남부 내륙도시로 10세기경 **이슬람 세력**(711-1236)이 이베리아를 지배할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오래된 유적과 전통적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1000년 전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했다는 안과대학과 흑사병 방역에 공헌했다는 의사의 동상이 있는 걸 보면 의술이 매우 발달했었던 모양이다. 도서관에는 당시에 40만-100만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한다.

일곱째 날, **그라나다(Granada)**는 스페인 말로 석류를 뜻하는데 산 위에서 보면 활짝 필 때의 석류 모습이란다. 바다가 보이는 높은 지형에 '붉은 성'이라고 불리는 '**알람브라(Alhambra) 궁전**'이 있다. 멀리 보이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끌어들여 성을 가꾸었는데,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관개기술로 목욕시설 분수 화장실 상하수도 발달되었다. 모로코 계통의 검은 무슬림인 **무어인(Moors)**들이 14세기경 그라나다에 지은 궁전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건축양식이 조화를 이뤘다. 아라베스크 무늬와 중유석 모양의 세밀한 양식을 가진 아치와 기둥, 돔, 소로와 수변 등은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리조트 별궁으로 쓰이던 곳들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가진 조각과 문양들로 장식되었고, 여러 별궁에는 술탄의 네 부인과 미녀 후궁들이 거거했는데, 미인이었던 그녀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마음에 흑심을 품었다고 해서 무조건 목을 잘랐다고 한다. 또한 목욕탕 주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은 궁녀들을 훑쳐볼까 봐 모두 눈알을 뽑아버렸다고 한다. 궁전 아래쪽으로는 오래된 집시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여덟째 날, 17세기경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 무대가 되었던 콘스에그라는 사방이 넓게 펼쳐진 농업지역이었다. 평야 한 가운데에는 작은 구름지 산이 있는데 바람이 아주 강했고, 하얀색 풍차들[사진]이 10-15개쯤 관광용으로 남아 있었다. 산 아래 평야에서 곡식을 거둬 노새가 끄는 수레에 싣고와서는 풍차 방아간에서 곡식의 껍질을 벗긴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동키호테의 명대사 중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누가 미친거요?..."란 구절이 떠오른다.

아홉째 날, **톨레도(Toledo)**는 16세기까지 스페인 제국의 옛 수도로 풍부한 역사적 유물을 가진 도시다. 지금은 9만 인구의 작은

도시로 중세시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톨레도 대성당에는 최후의 만찬과 천지창조에 이어 세계 3대 성화라고 일컬어지는 '오르가즈 백작의 매장'이 소장되어 있다. 수도 **마드리드 (Madrid)**에서는 동키호테 동상, 마요르광장에서는 곰의 동상을 볼 수 있었다.

열흘째, 고속전철로 마드리드역을 출발해 2시간반만에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열정과 낭만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건축공학에 예술과 영감을 불어넣은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Antoni Gaudi)의 작품들**, 초기의 자연적 색소를 가미한 사람들을 위한 건축물들과 후기의 신에게 바치는 성당 건축물[사진]에 이르기까지, 가우디의 모든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문주의 언덕의 영웅 황영조의 기념동상과 올림픽 공원, **바르셀로나 축구장**을 둘러봤다.

이번 11일간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만 했다고보다는, 역사와 미술, 종교, 중세시대를 통째로 공부하고 온 느낌이다. 네 사람을 상대로 박식한 가이드가 밀착해서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듣다보니 바로크 양식, 고딕, 인상파 등 자세히 몰랐던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한쪽 귀로 대충 이해하고는 바로 잊어버리긴 했지만, "세상은 넓고 볼 것도 참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회원 명단 (109명 / 2024-3-25)

강교숙	김상만	성기로	윤재욱	임호순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한용희 한용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손갑수	윤종숙	정도현	
강영선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정수일	
계동휘	김영만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우영	손옥화	이민제	정해민	
곽상준	김익성	송근수	이상무	조상근	
곽선섭	김정필	송웅길/ 송현자	이승준	주상선	
곽승용	김중율	송학린	이 준	주재양	
권문웅	김창수	송혜순	이대연	진봉일	
권정덕/ 홍선경	김충정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천종화	
권영대	김지갑	신응남	이용대	최구진	
권태전	김태일	오순문	이전구	최병우	
금영천	김현중	오용면	이종대	최순채	
김광수	노용면	오인석	이준혁	최진영	
김동건	김광현	박기환	이준행	최한용	
김문경	김동건	박상원	이행순	최학주	
김문언	김문경	박희병	이흥빈	한민우	
김병순	김병순	배상규	임도혁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62명 / \$6,200 / 2024-3-25

강에드	김종율	윤상영	임호순	허유선
계동휘	김한중	윤선구	정해민	홍지복
고애자	민준기	윤종숙	조달훈	홍선경
권문웅	박기환	윤재욱	조승자	홍종만
권영대	박희병	이강홍	조상근	홍예경
권정덕	배상규	이대연	진봉일	홍정표
권태전	성기로	이상원	천병수	
금영천	손경택	이승준	천종화	
김광수	신응남	이영범	최준희	
김동건	신두식	이용대	최학주	
김문경	신진식	이전구	최한용	
김상만	오용호	이종대	한용오	
김영덕	오인석	이행순	한태진	
김정필	우규환	임도혁	한용희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2명 / \$9,600/2024-3-25)

강에드 200	김한중 300	이전구 1000	홍종만 10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종대 200	
권정덕 300	손경택 1500	이행순 200	
금영천 300	신두식 200	임호순 3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정해민 1000	
김종율 200	오용호 300	최준희 400	
김창수 200	이강홍 200	한태진 5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0명 / 2024-2-25)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3-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11일(목)	Hiking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5월	23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Pelham Bay Golf Club
6월	13일(목)	Golf Outing
7월	18일(목)	Golf Out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7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

골든클럽 당구 모임: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 1시  
Star Billiards, Palisades Park, NJ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박상원 (음대69)
- 성기로 (약대57)
- 오인석 (법대58)
- 유무영 (공대66)
- 진봉일 (공대51)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